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22대 총선과 20%의 여성 국회의원, 60인에게 거는 성평등 정치에 대한 기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섰고, 그 뒤로 2017년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모두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도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를 앞서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선거에 있어서 이 같은 투표율의 변화는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23: 4-5).

제22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는 60명으로 20%를 기록하여 제21대 총선보다 1%p 증가한 수준에 그쳤지만, 재선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절반을 차지했고 3선 이상이 25%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역구 당선자가 36명, 비례대표 당선자가 24명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역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20대 총선부터였고,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1명 많은 정도였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보다 12명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표 1〉 역대 국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명, %)

	전체 여성의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16대(2000)	16(5.9)*	5 (2.2)**	11 (23.9)***
17대(2004)	39(13.4)	10 (4.1)	29 (51.8)
18대(2008)	41(13.7)	14 (5.7)	27 (50.0)
19대(2012)	47(15.7)	19 (7.7)	28 (51.8)

	전체 여성의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20대(2016)	51(17.1)	26 (10.2)	25 (53.1)
21대(2020)	57(19.0)	29 (11.4)	28 (59.5)
22대(2024)	60(20.0)	36 (14.2)	24 (52.2)

* 전체 의원 중 여성 비율, ** 전체 지역구 의원 중 여성 비율, *** 전체 비례의원 중 여성 비율

그러나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 30% 권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693명의 공천 후보 중 97명(13.9%)만이 여성 후보자였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할 부분이다.

■ 지역별 여성 후보 현황

여성 후보가 공천되어 출마한 지역을 후보자 수의 순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9명(23.4%), 경기 21명(14.3%), 부산 9명(20.9%), 경북 8명, 광주 6명 정도로, 서울·경기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현황

역시 후보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어, 서울 11명, 경기 14명, 부산 3명, 경북 3명, 대전 2명, 그리고 대구, 광주, 전남에서 각각 1명이 선출되었다.

여성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세종시였으며, 1명만 나온 지역은 충북, 충남, 제주 지역이었다.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세종, 충북·충남, 제주를 비롯하여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남 지역이었다. 여성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원인은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자가 없었거나 정당의 지지기반과 거리가 먼 지역에 공천했거나, 반대로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및 당선자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후보자				당선자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693	596	97	13.9	254	218	36	14.2
서울	124	95	29	23.4	48	37	11	22.9
부산	43	34	9	20.9	18	15	3	16.7
대구	34	31	3	8.8	12	11	1	8.3
인천	38	35	3	7.9	14	14	0	0
광주	36	30	6	16.7	8	7	1	12.5
대전	22	20	2	9.0	7	5	2	28.6
울산	16	14	2	12.5	6	6	0	0
세종	7	7	0	0.	2	2	0	0
경기	147	126	21	14.3	60	46	14	23.3
강원	21	19	2	9.5	8	8	0	0
충북	21	20	1	4.8	8	8	0	0
충남	31	30	1	3.2	11	11	0	0
전북	33	31	2	6.0	10	10	0	0
전남	36	33	3	8.3	10	9	1	10.0
경북	40	32	8	20.0	13	10	3	23.0
경남	37	33	4	10.8	16	16	0	0
제주	7	6	0	0.	3	3	0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및 당선자 통계에서 재구성 (접속일: 2024. 6. 15.)

■ 정당별 여성 후보 현황

정당별 여성 공천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41명, 국민의힘 30명, 녹색정의당 7명, 새로운미래 3명, 개혁신당 6명, 자유통일당 2명, 진보당 5명, 민중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거대 양당 후보자가 71명(73.2%)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별 여성 당선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29명, 국민의힘 21명, 조국혁신당 6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¹⁾ 거대 양당 소속이 50명(83.3%)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구 당선자도 거대 양당에서만 선출되어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에서 지역구를 통한 진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지역구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 비율은 13.9%, 여성 당선자 비율은 14.2%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가 된다. 이를 보면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진입 경로로서 비례대표제도의 효과와 유용성은 여전히 크고, 지역구에서의 공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함을 실감할 수 있다. 과거 총선에서도 역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 당선자의 소속 정당은 거대 양당인 경우가 80~90%에 가까운 현실을 볼 때, 거대 양당의 여성 후보 공천은 여성 의원 수와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본선 경쟁력과 이들 정당의 특정 권역에서의 지지기반을 감안하여 권역별 여성 후보 공천 현황을 정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총 48개 선거구에 양당이 11명(22.9%)을 동일하게 공천하였고, 국민의힘에서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도는 총 6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5명(8.3%), 더불어민주당 13명(21.7%)을 공천하였는데, 당선자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1명이 당선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3명이 모두 당선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는 사실상 현직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고,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달라서 14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을 공천했고 당선자는 없었다.

거대 양당은 특정 지역에서 우세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후보 공천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이 소위 당선 가능 지역이라 본다. 제21대 총선(2020년)에서 이들 지역에 여성후보가 공천된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산 8명, 대구 2명, 경북 2명, 경남 0명을 공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1명, 전북 0명, 전남 0명을 공천했다. 또한 상대 정당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즉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국 지지기반이 우세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3명, 대구 1명, 경북 3명, 경남 0명,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1명, 전북 0명, 전남 1명을 공천하여 사실상 지난번 총선과 달라진 점이 없다. 지역별 선거구와 양당의 후보 공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은 18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3명(16.7%),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35.3%)을 공천하였고 국민의힘 3명만 당선되었다. 대구는

1)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RS&menuNo=600137>

12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을 공천했고 국민의힘 1명만 당선되었으며, 경북은 13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 0명을 공천하여 국민의힘 3명이 당선되었다. 경남지역은 16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0명,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을 공천하여 여성 당선자는 0명을 기록하였으며, 울산 지역도 6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0명, 더불어민주당 1명을 공천하여 여성 당선자는 0명이었다. 영남 지역의 경우 선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 결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울산, 경남 지역에 공천한 여성 후보자가 0명이고, 대구 지역에도 공천을 1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 후보의 공천이 매우 저조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호남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8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고, 전북 1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0명이 출마하여 여성당선자는 0명, 전남 1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하여 여성당선자 1명을 기록하였다.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기반이 강한 지역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호남 지역 전체에 2명의 여성 후보자만을 공천한 것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성 후보 공천에 매우 인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거대 양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합계	254	136	30 (11.8)	12	245	89	41 (16.7)	24
서울	48	54	11 (22.9)	4	48	16	11 (22.9)	7
부산	18	8	3 (16.7)	3	17	8	6 (35.3)	0
대구	12	7	1 (8.3)	1	8	2	1 (12.5)	0
인천	14	4	1 (7.1)	0	14	3	1 (7.1)	0
광주	8	1	1 (12.5)	0	8	3	1 (12.5)	1
대전	7	1	0	0	7	4	2 (28.5)	2
울산	6	0	0	0	5	1	1 (20.0)	0
세종	2	4	0	0	1	0	0	0
경기	60	40	5 (8.3)	1	60	18	13 (21.7)	13
강원	8	1	1 (12.5)	0	8	0	0	0
충북	8	1	1 (12.5)	0	8	0	0	0
충남	11	1	0	0	11	2	0	0
전북	10	2	2 (20.0)	0	10	1	0	0
전남	10	1	1 (10.0)	0	10	4	1 (10.0)	1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경북	13	7	3 (23.0)	3	11	0	0	0
경남	16	4	0	0	16	4	4 (25.0)	0
제주	3	0	0	0	3	0	0	0
지역구				12				24
비례				9				5
총합계				21				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및 당선자 통계에서 재구성 (접속일: 2024. 6. 15.)

한편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수준의 여성 공천 신청자 수를 파악해 보았다.²⁾ 남성 공천 신청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므로 공천 신청자 수준에서 성별 비율을 제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공천을 신청했고, 몇 명이 최종 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많았는데, 공천 신청자 수를 보면 국민의힘 136명, 더불어민주당 89명으로 국민의힘 여성 공천 신청자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천 신청자는 서울에 각각 54명, 26명, 경기도에 각각 40명, 31명, 인천에 각각 4명, 3명으로 국민의힘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역 지지가반이 강한 부산에 각각 8명, 8명, 대구에 각각 7명, 2명, 경북에 각각 7명, 0명, 경남에 각각 4명, 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지지가반이 강한 광주에 각각 1명, 3명, 전북에 각각 2명, 1명, 전남에 각각 1명, 4명이었다.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던 지역은 국민의힘의 경우 울산

과 제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지역이었다. 여기서 짚어 볼 만한 것은 국민의힘 경남 지역의 4명 공천 신청자 중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의 지지가반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여성 예비후보자 수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지지가반이 강해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경우, 공천과정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외부 영입인재를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의 당직자나 선출직 출신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이처럼 여성 정치인의 공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 매우 공고함을 보여 준다(김은경·김복태·김혜영, 2020).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남의 권향엽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전남에서 46년만에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³⁾되었다는 것은 호남의 지지가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정치인 양성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은 매 선거

2) 국민의힘에서는 홈페이지에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자료를 업로드하여 해당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당 공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집계된 후보자 및 당선자 총 수를 기반으로 인터넷 자료와 신문 기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수를 파악하였음.

3) 광양 시민신문(2024. 4. 11.) 권향엽 당선... ‘46년만’ 전남 여성 국회의원 <https://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4> (접속일: 2024. 6. 20.).

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⁴⁾ 제21대 총선(2020년)에서도 양대 정당에서는 여성 공천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공천 결과는 10% 초반에 그쳤다. 이번 제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이 두 정당은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총선거기획단에서는 할당제와 가점제를 적극 검토하여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겠다고 밝혔고,⁵⁾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총선거기획단에서부터 밝히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⁶⁾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여성 후보 30% 공천에 대한 약속과 10%대에 그치는 공천 결과에 실망하는 일이 매 총선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정당의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속에 여성 정치인에 대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 여성 후보자의 정치경력과 공천 방식

공천으로 후보 자격을 확보한 여성 후보자와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예비 후보자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았다. 양당의 후보자 중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중이 전체 후보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경력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자로 공천되는 비율이 높았던 데 비해, 현역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지역구 공천은 매우 드물었다. 공천이 확정된 여성 후보자의 국회의원 경력을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7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3명, 전직 국회의원 6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12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1명, 전직 국회의원 7명이었다. 한편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 그룹에도 국회의원 경력자가 상당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1명, 현역 비례대표 6명, 전직 국회의원 4명으로 11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5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5명, 전직 국회의원 2명으로 12명이었다. 이들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보자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경선 또는 단수공천의 결정으로 공천되지 못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 출신도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고, 특히 이 그룹 중 공천이 된 경우는 소속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의 우세지역에 공천된 경우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후보는 구청장 출신이 국회의원에도 전한 경우였다. 국민의힘 총 3명, 더불어민주당 총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이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만이 최종적으로 공천되었고, 이 중 1명만이 당선되었다.

선출직 경력은 없으나, 청와대(대통령실) 근무 경험 또는 장·차관 경력을 가진 여성 후보자가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같았고, 정당 당직자

4) 김은경(2024), “제22대 총선에서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 토론회(2024.1.19.). 토론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5) 연합뉴스(2023.11.8.) 與 “총선 공천률에 여성·청년 배려”...할당·가점제 적극 검토: “정치를 오래 한 사람과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여성들의 출발선이 얼마나 갭(차이) 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청년·여성에 대해 배려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국민의힘 사무총장) <https://www.yna.co.kr/view/PKR20231108158900001>
6) 연합뉴스(2024.1.11.) 전략지 청년·여성 우선공천...민주, 공천률 사실상 확장: 총선거기획단에서 제안한 현역 불출마 지역구 등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 제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천 작업 착수.

출신의 경우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외부 영입인사에 해당하는 전문가·기업인 집단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었다.

최종 당선이 확정된 여성 후보자의 정치 경력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국회의원 경력으로 현직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전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며 전직 국회의원도 모두 지역구 출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들 지역구

의원의 최초 국회 진입 경로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지역구로 출발한 의원도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도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처럼 비례대표 출신 여성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비례대표가 여성 정치인에게는 국회 진입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신청과 통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4〉 거대 양당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정치 경력

(단위: 명)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예비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1	7	7	5	12	12
	비례	6	3	0	5	1	1
전직 국회의원		4	6	2	2	7	5
광역의원		2	0	0	9	5	1
기초의원		11	3	0	3	1	0
청와대(대통령실), 장·차관 출신		5	3	1	5	3	1
정당인(대변인, 지역위원장 등)		13	3	0	8	2	0
전문가·기업인		29	4	1	9	5	3
시민단체		6	0	0	1	0	0
구청장		3	0	0	1	3	1
언론인		3	1	0	0	1	0
공직자		0	0	0	1	1	0
기타(학생 등)		2	0	0	0	0	0
합계		85	30	12	49	41	24

자료: 국민의힘 홈페이지, 여성후보 관련 신문기사에서 저자 재구성.

여성 후보자의 공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단수공천 14명, 전략공천 3명, 경선 12명으로 단수공천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단수공천 19명, 전략공천 12명, 경선 10명의 순으로 역시 단수공천이 가장 많았다.

공천방식에 따른 본선 당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당선 비율이 58.3%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 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표 5〉 거대 양당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공천 방식

(단위: 명, %)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a)	당선자(b)	b/a(%)	후보자(a)	당선자(b)	b/a(%)
	30	12	40.0	41	24	58.5
단수 공천	14	4	28.6	19	11	57.9
전략 공천	3	0	0	12	7	58.3
경선	12	7	58.3	10	6	60.0
기타(국민추천)	1	1	100.0	-	-	-

자료: 국민의힘 홈페이지, 여성후보 관련 신문기사에서 저자 재구성.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의 특징은 현역 국회의원의 재출마가 많았다는 점, 소속 정당의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출마했다는 점, 그리고 정당의 지지기반이 확고한 지역에서는 경선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재선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넘는 가운데 3선 이상의 비율도 25%(15명)를 넘어, 이른바 중진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회가 되었다. 3선 이상 여성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나경원(5선), 조배숙(5선), 김희정(3선), 김정재(3선), 임이자(3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6선), 서영교(4선), 한정애(4선), 남인순(4선), 진선미(4선), 전현희(3선), 백혜련(3선), 이재정(3선), 이연주(3선), 송옥주(3선) 의원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별 정치경력을 확인해 보았다. 지역구 당선자와 두드러지는 차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등) 그룹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정당인, 공직자 순이라는 점이었다. 국회의원 경력으로는 제21대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연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전직 국회의원 경력을 가

진 의원은 1명 있었다. 「정당법」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던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여성단체 출신이나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진입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제18대, 제19대에도 여성단체를 대표하던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력 중 여성인권 증진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여성 의원은 정당인으로서 청와대 출신 1명이 있다. 그동안 여성 관련 이슈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구도로 의제를 이끌어 온 것을 상기할 때,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후보를 포함했어야 했다. 또한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의 취지가 단순히 여성 의원의 양적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김은경·김복태, 2021), 할당제의 취지에서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포함했어야 했다. 현재 제22대 비례대표 의원의 공식적인 경력이나 직업만으로 보아 여성단체 등 여성계와 소통할 만한 여성 의원이 누구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6〉 제22대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경력

(단위: 명)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	-	-	-	-	-
	비례	1	-	-	-	-	1
전직 국회의원		1	-	-	-	-	-
광역의원		-	-	-	1	-	-
기초의원		-	-	-	-	-	-
청와대(대통령실), 장·차관 출신		-	-	1	-	-	-
정당인(대변인, 지역위원장 등)		1	2	-	1	-	-
전문가·기업인		4	2	3	-	1	-
시민단체		1	-	-	-	-	-
구청장		-	-	-	-	-	-
언론인		-	-	-	-	-	-
공직자		1	1	1	-	-	-
대중가수		-	-	1	-	-	-
합계		9	5	6	2	1	1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이라는 연합 정당명부를 만들어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명,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당선되었음.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국회의원 검색.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R.do?cntsDivCd=NARS&menuNo=600137>; 연합뉴스(2024. 4. 11.) [표]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명단⁷⁾에서 저자 재구성.

■ 성평등 공약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의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2012년의 대선에서 제시됐던 성평등 공약을 살펴보면 양대 정당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내용에서 한나라당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확대를, 민주당은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제까지를 공약사항에 담고 있었다. 둘째, 민주당은 성인지적 인권통합 교육이라는 제목하에 여성관련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셋째, 양성평등정책의 실현 의지로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적용을, 총선과 대선에서

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분석, 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이라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이 한나라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김은경, 2013: 24).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8년 미투운동 이후에 실시된 총선이었기에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공약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정당에 관계없이 선거공약으로 가장 많이 대두된 분야인 저출생·가족 돌봄 이슈도 있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선거에서와 유사하게 영유아 등 가족돌봄, 출산지원정

7) 연합뉴스(2024. 4. 11.) [표]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명단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0200001>

책, 젠더폭력, 한부모 등 가족정책,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공약은 없었다. ‘여성부’ 신설이라는 공약이 등장한 지 30년, 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라는 공약이 나온 지 불과 10년 만에 여성정책추진체계 폐지라는 공약이 제기되었던 것이다.⁸⁾ 정치권과 국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는 현상(김은경·전선영, 2022)은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논의 주제는 주로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및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관되어 나타나면서(고민희, 2024: 23~24),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가 담론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당파적 논의에 함몰되는 양상을 이어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다. 먼저 한국여성정의에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성평등이나 돌봄 분야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국방에서부터 주거·균형발전, 경제·미래먹거리, 기후·생태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취합되었다. 그러나 이 중 1순위로 꼽힌 것은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제’로 나와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가장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⁹⁾ 한편 여성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각 정당에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들의 답변을 보면, 대체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

봄서비스체계 개선, 일돌봄 균형, 가족다양성 등에 있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여성가족부 강화,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차별금지법, 성평등교육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의당만이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에서는 입장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는 그동안 성평등 정책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대 남성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던 개혁신당과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조국혁신당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성평등 이슈를 이끌고 갈 선봉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를 찾는다면, 그것은 재선 이상의 여성의원과 3선 이상의 중진급 여성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성평등 의제가 주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그렇기에 주목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 여성단체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을 가진 중진급 여성의원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큰 울림의 목소리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여성 당선자 60명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여성이기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을 가져서도 안될 것이다. 여성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했듯이,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유권자를 대할 때 역시 ‘국회에, 혼탁한 정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커다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절절히 바라는 바이다.

8)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능강화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78%, 남성 응답자의 70.5%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김은경 외, 2023: 143~144).

9) 여성신문 “올해 여성정치인 1호 입법과제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12>

• 참고문헌 •

- 고민희(2024). “여성대표성 측면에서 바라본 22대 총선”.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여전히 먼 길 남녀동수. 한국여성정책·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김복태(2021).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여성정치세력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 『페미니즘연구』. 21(2), 89-136.
- 김은경·김복태·김혜영(2020). “정당의 성차별적 남성 중심 네트워크와 여성 당직자의 지위”. 『정치·정보연구』. 23(3), 67-100.
- 김은경·김복태·장윤선·염혜경·정하연(2023).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투표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전선영(2022). “국회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의제: 여성위원의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185-227.

국민의힘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